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2.08

미션  
MISSION

# 사랑으로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강의를 마치며...

## 재활치료1팀 배준호 팀장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  
하나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직접 몸으로 부딪혔을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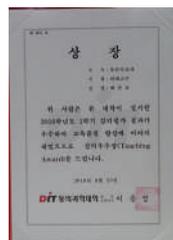
2004년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강의를 시작으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 온 학교 강의를 이제는 내려놓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나의 생활에도 많은 것이 변화 되었지만 그 중 하나가 학교 강의를 그만두게 된 것이다.

병원생활과 학교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하여 학교 강의 활동을 병행 한다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학교 강의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던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1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2004년 - 2021년(18년)  
동의과학대학교 물리치료과 2010년 - 2016년(7년)  
동의대학교 물리치료학과 2017년 - 2020년(4년)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신경계 재활치료에 관심을 가지면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뜻을 가지고 입사하여 현재 치료팀의 여러 분야에서 물리치료사로서 활동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보람과 뿌듯함을 느낀다.

물리치료사로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병원 일에 전념하여 재활치료팀이 회복기 재활의 최적화와 함께 참여자 분들의 빠른 일상 복귀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재활치료2팀 백영수 팀장님이 재활치료 및 회복기재활치료에 대한 이해와, 재활치료에서 회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재활치료영역에 대한 이해와 재활과정에서 중요한 가족의 역할과 생활관리 가이드를 교육해주셨습니다.



## 재활치료의 이해와 재활과정에서 중요한 생활관리 (08.06)

## 슬기로운 재활생활



재활의학과 서휘 진료부장님이 재활치료를 받아야하는 참여자들의 재활 방향성 확립에 대해 교육해주셨습니다.



## 나의 치료목표 정하기 (08.13)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우리도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 휠체어스쿨 (08.09, 08.16)

전반기 휠체어스쿨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실내 훈련의 성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단체외부활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아쉽게 실내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정기 그룹치료 시작 (08.22)

매주 월·수·금 2시~4시 40분에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 모여서 유화그리기 등의 공예작품활동을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완성된 작품은 모아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재활코치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및 보호자분과 함께 영화의 전당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동휠체어 '로보휠' 제품을 직접 탑승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밖으로 한걸음씩 (08.11)

함께 하는



총무팀 권진태선생님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고 권진태선생님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그리고 산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척수 이야기 (08.02)



# 우리는 가족입니다. 8월의 신규입사자



영양팀 박성은 영양사



관리팀 이하림 부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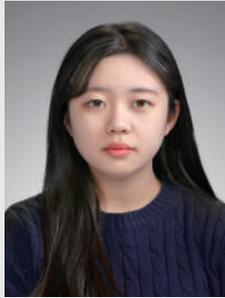
관리팀 김철우 파트장



원무팀 이태한 파트장



간호팀(8W) 최서윤 간호사



총무팀 김보현 팀원



홍보팀 서정빈 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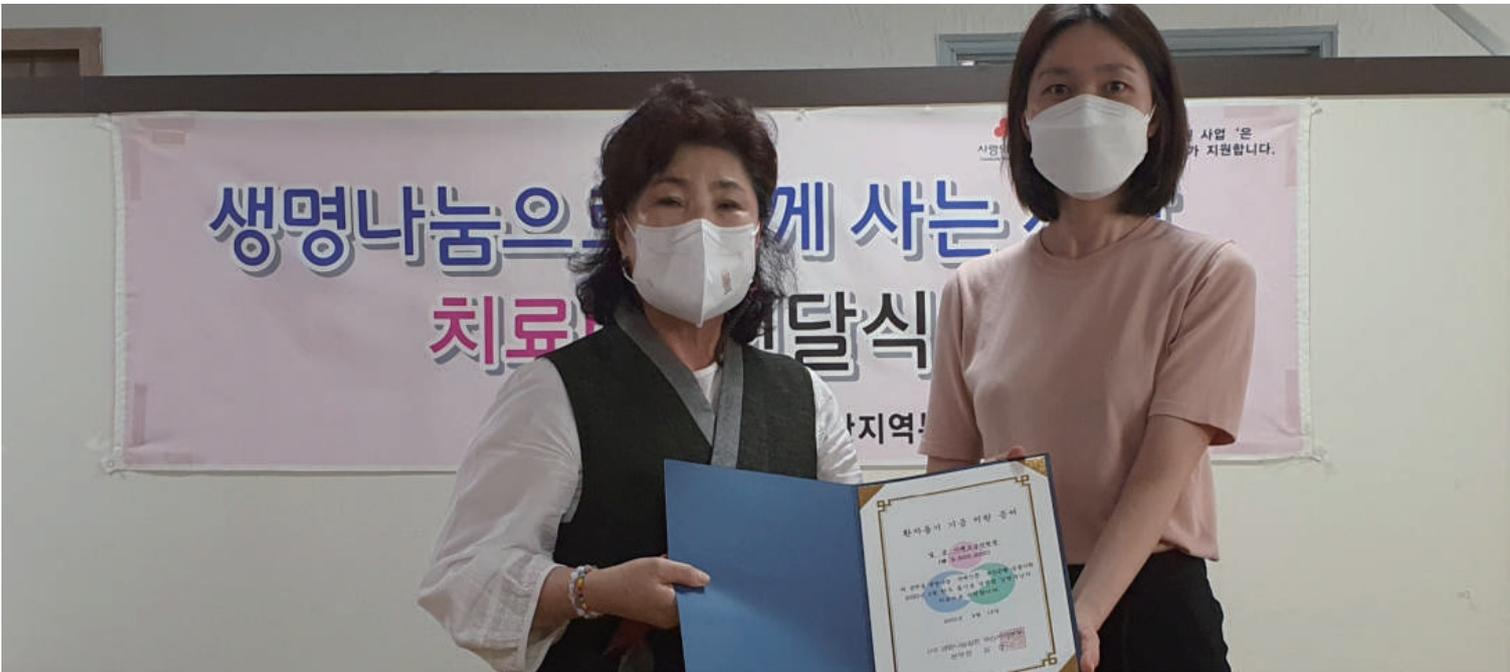
간호팀(7W) 윤동현 간호사



##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 국제신문



≡ 부산말사전    다큐멘터리 '청년'    사회    정치    경제    해양수산    문화    주말엔    스포츠    기획    인터뷰    TV국제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76> 뇌출혈·모야모야병 박미선 씨**  
 뇌 질환으로 세 차례나 수술 ... 치료비 부담 막막

네이버에서도 국제신문 볼 수 있습니다  
 뉴스구독하기

# 생명나눔실천본부-치료비지원사업 '김OO' 참여자 선정 및 치료비 전달식 (08.12)

- BNK 부산은행·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국제신문  
 공동기획

박미선(42·가명) 씨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 오빠와 함께 생활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식당, 공장 등에서 일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박 씨가 대학교 입학식 날 갑자기 쓰러지면서 불운이 닥쳤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박 씨는 치료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직장생활도 만만치 않았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직장에서 쫓겨나기 일쑤였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 3년 넘게 집에만 머물렀다. 그러던 중 계속되는 두통에 병원을 찾았고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박 씨는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으나 지난해 또다시 뇌출혈로 쓰러졌다.

박 씨는 현재 언어장애를 겪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혼자서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상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칠순 노모는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24시간 딸의 곁을 지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지만 대출 이자와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내고 나면 기본적인 생활도 힘든 상태여서 쌓여가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담당 복지사는 "박 씨는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20722.22017006387> >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위하여 추석을 맞아 후원물품 '떡국 떡'을 제작하였습니다.

8월에는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에 후원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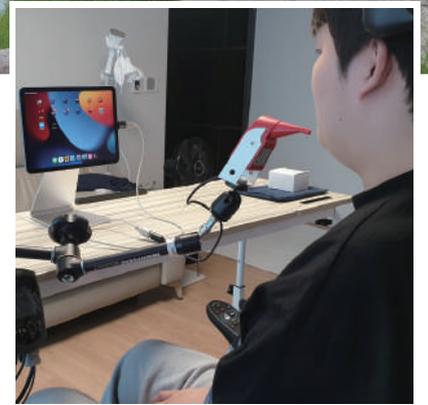
**(사)나행동 후원물품 (08.30)**  
**'떡국 떡 전달'**



퇴원 참여자 자택방문 및  
외부적응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진재활동가와 동행하여  
인테그라마우스 사용방법과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집  
주변을 함께 다녀보았습니다.

## 퇴원 참여자 관리 (08.18)



## 퇴원 후 만남



과거 입원하여 퇴원 전  
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주거  
개선을 받았던 퇴원한  
참여자의 집에 가정방문하여  
희망박스를 전달하였습니다.

##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사업 퇴원 대상자 가정방문 (08.22~23)





## 2022 부산장애인력비협회 워크숍 참가 (08.26)

적수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부산장애인력비협회와의 교류 증진을 위해 재활치료팀 적수순상파트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6명이 부산장애인력비협회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희망박스 전달식 (08.03~04)

병원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지역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후원물품으로 코로나 19 희망박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본원에서 코로나 격리 해제 되신 분 대상으로 '코로나19 희망박스'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 이벤트 프로그램

## 편백베게 만들기 (08.26)



사회사업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여태껏 이벤트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사전신청자가 접수되었는데, 바로 '편백베게 만들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여자(환자) 및 보호자, 간병사분들께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난 뒤인 6시 30분에 진행하였습니다. 박선미 사회사업팀장님이 어느 정도 인원이 모였을 때,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함께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마음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편백나무 베개가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건강과 생활용품, 그리고 오랜 병실생활에 부족한 보호자분들의 베개 수요가 아닐까 합니다.

편백나무에서 발산하는 피톤치드가 건강에 좋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 미생물 등 나쁜 세균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발산하는 천연항균물질입니다. 공기정화에도 좋고 스트레스 완화, 향균작용까지 합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한 달에 한번 이벤트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매번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다보니 그 프로그램의 기호에 따라 적을 땐 1~2명이 오시기도 하고, 많을 땐 어제처럼 많이 오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활병원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 일상재활센터 8월 그룹프로그램 '크림브릴레' 만들기 (08.17)

사회사업팀과 재활치료팀이 함께하였습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에서 참여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그룹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그룹프로그램은 달콤한 휴식처럼 부드러운 '크림브릴레'  
만들기입니다.

오늘도 만들기에 앞서 '아이스브레이킹'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에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젬톡 카드'를 활용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죠.

첫 번째로 지목받은 참여자분이 본인의 카드에 적힌 질문을  
읽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지목하면  
순서대로 이어지는 간단한 규칙을 정했죠.

특히 한 참여자분이 '생일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이라는  
질문에 '몸이 아프니까 돈도 필요 없다. 건강을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슬프다.'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편한 몸을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만난 인연이라 많이들 공감했더랬죠. 그래서 이런  
쉽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본격적인 크림브릴레 만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일상재활센터 참여자 및 보호자와 함께 익숙지 않은  
디저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아직은 몸이 조금 불편한 분도, 많이  
불편한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자극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오븐에 굽혀지는  
크림브릴레 냄새는 오감을 만족시키기 충분합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던 일상이 특별해 지는 순간이 됩니다.



## 이달의 우수 자립왕 & 출석왕 수상자 발표 (08.05)



# 홍보팀장의 '브런치' 네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 먼저 카톡으로 문의해줬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디지털 세계에 인간중심적 마케팅 사례

“정말 감사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상담 받을 수 있어 한국 병원 짱이라고 옆에 동료들한테 완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뵙게 되면 좋을 텐데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용~~”

몇 년 전 해외에 계신 고객님의 마지막 카톡대화 내용이다. 며칠에 걸쳐 50통을 주고받은 상담이다. 사실 나는 병원이라는 직장에서 일한다. 요즘은 고객들의 유형이 많이 바뀌어서 카톡상담의 빈도수도 몇 해 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다. 각종 매체를 통해 알아본 정보를 카톡상담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기본적인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난 의사가 아니기에 의료상담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담이 제약적이다. 그래도 카톡상담은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가 있다. 우린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료가 되는 오늘이니까.

조금 더 앞선 몇 해 전 어느 날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중고 디지털카메라를 팔기 위해 중고카메라 사이트에 접속했다. 거기에 오른쪽 위에 카톡상담 버튼이 있었다. 클릭하니 자연스럽게 카톡상담이 연결되었다. 내 디카의 기종을 얘기하고 이것저것 질문과 답변을 하던 중 시간이 자연스럽게 5시를 넘었다. 근데 거짓말처럼 5시가 넘으니 잘 주고받던 카톡상담 창에서 ‘ 지금은 상담시간이 아닙니다. 다음날 오전 아침 10시 이후 상담바랍니다.’ 이런 메시지가 뜬다. 어이가 없다. 잘 주고받던 대화가 단지 설정에 의해서 그렇게 차단되다니, 그렇다면 그 담당자는 바로 설정을 풀고 대화를 이어가게 할 수 없었을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좋지 않은 기분으로 상담에 종료되어졌다. 본의 아니게 말이다.

이 일이 있던 후 얼마 뒤,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도 본격적으로 카톡상담 채널을 개설했다. 홍보팀에 근무하는 나의 일이다. 채널설정에 들어가니 얼마 전 있었던 그 카메라 사건이 생각났다. 그럴 리 없겠지만, 나와 같은 상황이 우리병원 상담과정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나는 24시간 365일 상담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카톡상담 관리자 어플을 내 휴대폰에도 깔고, 병원 밖에서는 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야말로 잠자는 시간 빼고 24시간 365일 모드인 셈이다. 물론 당시는 카톡상담 초기라서 하루에 1개정도 올라갈까한 사정이었다. 집밖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 시간에도 상담을 해주면 고객들이 엄청 놀래겠지 하는 즐거운 생각이 앞섰다. 준비는 되었다. 깜짝 놀랄 준비되었겠지? 맛좀봐라~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 바로 처음으로 해외에서 상담하신 고객이다. 병원에 다양한 진료과목이 있지만, 그 중 갑상선비수술 분야는 전국에서도 많이 찾는다. 지금도 가끔 해외에서도 문의하는데, 주요점은 갑상선수술을 권유받은 고객이 비수술치료가 가능한지를 알아봐주는 것이다. 물리적인 거리상 메일로 영상과 자료를 받아서 의사에게 보여준 후 답변을 대신 해주는 시스템이다. 고객에게는 멀리서 한번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카톡과 메일로 덜어주니 얼마나 고마울지 상상이 간다. 해외 고객도 그런 사례다. 해외라서 전화통화도 힘들고 혹시나 싶어서 카톡을 보냈는데, 이거 뭐 낮이고 밤이고 답변을 해주고, 영상도 확인해주니 멀리 타국에서 우리나라 병원의 시스템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내가 다 흐뭇했다.

고객과의 일곱 시간동안 통화하다.

“우리가 먼저 전화로 건 것도 아니고 고객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주었는데 왜 우리가 먼저 끝나요?”

—안병민《보통마케터 안병민의 마케팅 리스타트》(책비)

그렇다. 고객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카톡으로 상담을 해줬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러니 최대한 정성스럽게 상담해줘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체들이 오늘도 차별화를 외치면서 서로 경쟁업체와 유사한 커뮤니티로 동일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즘이다. 유튜브 동영상에 대세니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던지, 인스타를 통해 끊임없이 카드뉴스로 푸쉬하자느니 등. 차별화가 아닌 동일화를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아닐까? 경쟁이 치열할수록 경쟁사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이시대의 기업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가장 기본은 많은 고객이 아니라 만족한 고객일 것이다. 복잡한 디지털 세계에서 인간중심적 마케팅, 그것이 내가 카톡상담을 하는 이유이다.

‘여보세요’는 여기를 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화를 만들었습니다.

—박웅현《여덟 단어》(북하우스)

오늘도 퇴근길 카톡이 울린다.

“여보세요. 혹시 상담가능한가요?”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